

전남도,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조성 박차

전문가 전략회의 열어 다양한 유치 전략·차별화 방안 논의

전남도가 레이저의 기초·응용 연구와 첨단 연관산업을 선도할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와 함께, 이를 연계한 국내 유일의 첨단 레이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13일 도청 정철실에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전남 유치를 위한 관계전문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초격차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전남에 유치

하고, 국내 유일의 레이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반도체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고 강화하겠다는 전남도의 의지가 반영됐다.

회의에는 이종민 광주과학기술원 명예연구위원, 고도경 한국광학회장, 남창희 기초과학연구원 초강력레이저과학 연구단장 등 국내 내로라하는 레이저 석학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의 효과적 유치전략 및 차별화 방향, 고부가가치 레이저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종민 명예연구위원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에서 이뤄질 다양한 기초과학 및 극한과학기술 개발, 국가전략산업의 기술적 한계 극복을 위한 첨단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미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와 신지식 기반 지역경제 고도화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 대표 김동균 ㈜그린광학전무는 "세계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방산 시장에서도 레이저 광원의 수요가 늘고 있다"며 "앞

으로 레이저 광원 기술을 확보하는 회사만이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레이저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대당 2천억 원에서 5천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의 핵심기술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첨단레이저 무기가 실전 투입되는 등 활용범위와 경제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각계 인사 100명으로 구성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추진위원회

'를 공식 발족하는 등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빠른 준비에 들어갔다. 2020년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참여한 노하우와 경험이 있어 전남 유치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다.

전남도는 나주가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2024년까지 연구시설 유치를 확정, 2033년까지 빛가람혁신도시 인근 50만㎡ 부지에 세계 최대 규모 초고출력·고에너지 기반 레이저 연구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레이저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테스트베드, 산학연 분원, 전후방 강소기업 등을 유치·집적화해 국내 유일 '전주기 레이저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에너지·반도체·국방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핵심원천기술을 선도하도록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반드시 전남에 유치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러스터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날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도가 진행하는 '대형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전략 수립 기획연구'에 적극 반영해 정부와 협력하고, 2023년 예정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차질 없이 대응할 방침이다.

/윤규진 기자

현대자동차, 준중형 SUV '2023 투싼' 출시



현대자동차는 13일 상품 경쟁력을 높인 준중형 SUV '2023 투싼'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2023 투싼은 연식 변경 모델로, 고객 선호 사양을 새롭게 적용하고 트림별 사양을 강화해 상품성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는 13일 상품 경쟁력을 높인 준중형 SUV '2023 투싼'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2023 투싼은 연식 변경 모델로, 고객 선호 사양을 새롭게 적용하고

트림별 사양을 강화해 상품성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전체 트림에 신규 사양인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와 진동경고 스티어링 휠을 기본으로 탑재해 편의성을 높였다.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는 도로 표지판 또는 내비게이션 정보를 활용해 경고를 해주고 설정 속도를 변경해 제한 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동급 최초로 적용된 진동경고 스티어링 휠은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 주행하면 스티어링 휠 진동을 통해 경고를 한다.

또한 현대차는 투싼의 엔트리 트림인 모던에 ▲8인치 오디오 ▲후방 모니터 ▲버튼시동 및 스마트 키를, 인기 트림인 프리미엄에 ▲10.25인치 내비게이션 ▲블루링크 ▲오토 디포그 ▲레인센서 ▲듀얼 풀오토 에어컨 등을 기본화했다.

최상위 트림 인스퍼레이션에는 1열 이중접합 차음유리, LED 실내등을 기본으로 적용했으며, 터널 연동 자동제어 기능을 개선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1열 이중접합 차음유리의 경우 투싼에는 처음 적용되는 사양으로 운전 중 외부 소음을 줄여 줌으로써 실내 정숙성이 개선됐고, 터널 연동 자동제어 기능은 차량이 터널을 벗어나면 공조기 뿐만 아니라 창문도 기존 상태로 자동 복귀시켜준다.

아울러 선택 사양인 플래티넘 패키지에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내 차 주변 영상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현대차는 영화 '언차티드'와 연계한 커스터마이징 디자인 패키지 '어드벤처'도 운영한다.

어드벤처 패키지 모델은 지난 2월 개봉한 언차티드에 등장한 오프로드 SUV 이미지의 투싼 콘셉트 차량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신규 디자인된 블랙 컬러의 ▲전면 하단 범퍼 ▲휠 아치 및 측면 도어 가니쉬 ▲퀴터 가니쉬 및 리어 리플렉터 ▲후면 스키드 플레이트 ▲19인치 전용 디자인 휠 ▲전용 사이드스텝 등을 적용함으로써 와일드한 느낌을 강조했다.(* 어드벤처 패키지는 가솔린/디젤/하이브리드 모델 인스퍼레이션 트림에서 선택 가능)

이 밖에도 현대차는 외장 컬러에 신규 색상인 진한 블루 계열의 오션 인디고 펠, 브라운 계열의 실키 브론즈 등 2종을 더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2023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라이드(E-Ride) 기술이 기본으로 탑재됐으며 19인치 휠과 미쉐린 타이어 등을 선택 사양으로 추가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의 4륜 구동 모델(HTRAC)은 3분기 출시 예정)

이라이드 기술은 과속 방지턱과 같은 둔턱 통과시 모터 제어를 통해 승차감을 완화시켜 승차감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판매 가격은 1.6 터보 가솔린 ▲모던 2천584만원 ▲프리미엄 2천872만원 ▲인스퍼레이션 3천238만원 ▲어드벤처 3천316만원, 2.0 디젤 ▲모던 2천798만원 ▲프리미엄 3천86만원 ▲인스퍼레이션 3천452만원 ▲어드벤처 3천530만원이다. (* 개별 소비세 3.5% 적용 기준)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모던 3천9만원 ▲프리미엄 3천282만원 ▲인스퍼레이션 3천603만원 ▲어드벤처 3천701만원이며, N 라인 모델은 1.6 터보 가솔린 ▲프리미엄 3천83만원 ▲인스퍼레이션 3천358만원, 2.0 디젤 ▲프리미엄 3천297만원 ▲인스퍼레이션 3천572만원이다. (* HEV 모델은 세제혜택 및 개별소비세 3.5%, N 라인은 개별소비세 3.5% 적용 기준)

현대차 관계자는 "신규 디자인 트림을 적용해 다양해진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수 기자

사령

이경률 영광 지역기자 임명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가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